

編入學制는 全面 시행되어야 한다

柳 一 相
(建國大 新聞放送學科)

1. 머리말

대학과 대학생의 수가 예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학은 좁은 문외의 상징이며, 대학생은 여전히 희소 가치의 대상이다. 정확한 숫자는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매년 고교 졸업생의 30%만이 대학에 진학하는 행운 아닌 행운을 누린다고 하니 대학 입학이 하늘의 별따기란 말을 들을 만도 하겠다.

그러나 일단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대학 입학 후에도 학생들은 여러 가지 갈등과 불만에 휩싸여 사회적 이탈 행동을 서슴치 않으며, 심지어는 개인적 갈등이나 불만을 사회체제의 모순 타파에 곧바로 연결시켜 사회적 안정을 위협하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말하자면 개인이 정당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 제도에 의해 부당한 차등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過失 대신 입시 제도의 결함에 그 책임을 돌리려는 경향도 없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형평을 잃었는지 수시로 점검해 보고, 萬에 하나라도 正義 원칙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시급히 更正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대학 입학 제도를 살펴 보면 특정 개인의 입장에서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다. 첫째,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종일토록 좁은 책상에 앉아 점심 식사 시간을 빼고는 전혀 숨돌릴 여유도 없이 치뤄야 하는 입학 시험은 제3자가 보기도도 쳐절하고 잔인한 느낌인데 그 당사자들, 특히 신체나 정신이 연약한 자나 지능이나 인내력이 부족한 당사자 개인에게는 엄

청난 고통의 시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弱者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다른 능력을 무시하고 보편주의적 선발 원칙이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畚田試驗 제도의 동의를 유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언제인가는 포출될 불만으로 남게 될 것이다.

둘째, 치열한 경쟁이 인간 사회의 필연성을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의 하나라고 치더라도 지나치게 一回의인 選拔 방식으로 사람들의 수준을 갈라 놓는다는 것도 자연의 순리가 아닐 것이다. 전기와 후기로 나뉘어 신입생들이 뽑히기 때문에 한번의 실수는 구제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후기 입학 시험 사이의 기간은 비교적 짧아서 실력의 향상을 도모할 기회는 사실상 없는 셈이다. 재수를 해서 실력 향상을 도모하면 된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겠지만, 생물학적 사정이나 사회적 조건들을 살펴 보면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요, 아니던 상당한 낭비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代案은 아닐 것이다.

셋째, 현행 학과 제도는 지나치게 세분된 분과 학문의 경계선을 학문적 미성숙 상태인 신입생 시절부터 견고하게 구축하여 지성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대학 초급학년에서는 세분된 전공 학과의 학문적 시야보다 더욱 폭넓게 자연과 사회를 조망하는 가치관의 형성이 필요한 시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의 학과 선택 잘못이 대학 4년 내내 그 개인을 특정 분과 학문에 묶어놓고, 나아가 일생 동안의 후회로 남아 순간적 선택이 일생을 좌우하게끔 못박아 버리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전혀 유용한 일이 못된다.

2. 編入學制度의 現況

많은 대학이 학칙상으로는 편입학 제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학기초가 되면 몇몇 대학이 편입생 모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아직껏 편입학은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3학년에 학사 편입만을 허용하는 제한된 사정에 머무르고 있다. 말하자면 편입학 제도의 실시는 현재의 대학 입시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거의 없는 별개의 제도로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금년 봄의 편입생 모집 광고만 보더라도 학사 편입 외에 더러 제2학년, 제3학년 편입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그 광고 전문으로 보아 몇 가지 불

명확한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세칭 일류대는 학사 편입생 외에 일반 편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먼저 편입학 제도가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집 과정의 공개화와 선발 시험의 공정 관리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편입학의 모집 과정을 비밀에 붙이고 선발 시험을 엄정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大學의 公信用은 크게 훼손하고 마침내는 한 대학의 질적 수준을 低落시키며 나아가 대학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불러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대학 편입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몇 가지 단점들을 지적해 본 후, 이 단점들이 해소된다는 가정하에서 편입학 제도의 전면 허용 및 제도화의 명분과 논리들을 보충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편입학 제도는 일반의 불신을 살 만큼 엉성하다. 예를 들면 편입생 모집 신문 광고에는 모집 인원이 약간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과별 모집 인원의 공개는 고사하고 단과대학별 편입생 모집 정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과별 모집 정원과 같은 세세한 사항의 신문 광고가 어렵다면 편입생 모집 요강이라도 정원을 명시하는 것이 입시의 공정 관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만약에 기부금에 의한 편입학 제도가 허용될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결손 정원 중 공개 경쟁 방식에 의한 편입학 모집 인원 수를 확정해 두는 것은 편

입학을 보충적인 입학 제도로 정착시키는 데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편입학 시험 일자가 각 대학의 편의에 맡겨져 있고 편입학 시험 응시 희망자는 지나친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편입학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을 2~3개군으로 나누어 희망자가 기껏해야 2~3번 정도 응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편입 학생을 모집하려는 뜻을 확정한 대학들은 각 지역별로 또는 대학의 수준별로, 기타 여러 가지 행편을 고려하여 편입학 시험 일자를 조정해 놓는다면 대학으로 볼 때 특정인이 여러 대학의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후, 그 중 한 대학을 빼나머지 대학에 다시 결손 인원을 만드는 사례를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고, 학생 개인으로 본다면 2~3회의 기회에 자신의 편입학 의지 관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當落을 불문하고 빠른 시일내에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公共的 側面의 長點

이제 다시 말머리를 돌려 편입학 제도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할 공공적 측면의 크고 작은 이유들을 살펴 볼 차례다.

무엇보다도 대학은 한 나라 지성의 산실이다. 대학은 심오한 학술을 연마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지혜들을 발굴한다. 대학의 이 숭고한 위상은 대학이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인간을 결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대학의 본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大學은 가장 理性的인 활동으로 正義를 선포하고 정의의 질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다. 정의는 創造秩序라고도 일컬어지는 만큼 그것이 인간의 현실 생활의 상태 때문에 변경되었다면, 대학은 그것을 다시 정의의 질서로 변경시킬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필자는 현재 단 한 차례의 과실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만큼 절대적인 실수가 되버리는 현행 대학 입학 제도가 창조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대학은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칭 1류·2류·3류 대학이 있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편차,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엄존하는 현실에 더하여 學業을 따지는 감정적 인사 경향까지를 고려할 때, 그것들의 근본적인 해결이 더디다면 먼저 어쩌다 실수를 저질렀던 한 개인을 1~2년 사이에 원상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의 회복이요 이성적 판단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敎育의 機會均等に 관한 것이다. 우리 헌법의 이념은 교육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이념은 국민 각자의 자기 보존에 대한 목적이 교육을 통해 실현되도록 능력이 같은 각자에게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大學敎育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더욱 필요한 조건이며 숙달된 노동력과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게 하여 생활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더구나 대학의 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학 재단의 대학교육에 대한 물질적 능력과 정신적 의사가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입시 제도에 의해 뒤떨어진 대학에 배치된(?) 일부 학생들에게 재학의 기회를 주는 것은 그 개인의 정당한 능력을 고려한 기회 균등의 정당한 실현인 것이다.

실용적·기능적 측면에서 몇 가지 고려할 문제들도 있다. 고등학교 때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학과 선택을 잘못하여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학 재적응을 위해서도 편입학 제도는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세분된 분과 학문 간의 교류와 대학이 사회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자연의 본질에 대한 궁극적 해명을 위해 필요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대학 제도에 의해서 사실상 두절되어 있는 것은 애석한 일이다. 먼저 대학 편입학 제도는 어느 정도 분과 학문 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과 계열 학과의 적성을 가진 학생이 이과 계열의 학과에 재적하고 있을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해를 거듭할수록 당사자는 취미를 잃게 되고 학문적 낭패감에 휩싸일 것이며 대학 제도에 불만을 품게 되어 황금같은 젊은 시절을 허송세월하고 말 것이다. 이럴 때

轉科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편입학 제도는 大學의 活性化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4. 編入學制의 확대 실시가 가져 올 期待效果들

대학 편입학이 전체 대학에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그 입시 경쟁이 공개화될 때 기대되는 효과들을 도구적 측면, 전략적 측면, 소통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적 행위의 측면에서 대학 편입학 제도의 정착은 대학 생활을 안정화시키고 대학이 안고 있는 현재의 갈등과 모순들을 해소하여 대학의 목적을 재정립할 수 있다. 즉, 대학 편입학 제도가 현재 대학이 처한 목적 이탈적 행위 상황을 교정하여 대학이 합리적으로 재구성되는 길을 열 수 있다는 말이다.

대학 생활이 안정되던 구체적으로 대학은 교수와 학생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교수는 더욱 열심히 연구에 정진함으로써 훌륭한 이론과 고도의 지식 및 심오한 진리를 재생산해 내어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커리큘럼의 조정이 후속되고 각 대학에서 교수하는 교과목 내용의 전문화가 수반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전략적 행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이해 당사자가 편입학 제도를 합리적인 규

칙으로 선택함으로써 자연발생적인 협동의 범위가 넓어지고 협동의 필연성이 한껏 고양될 수 있게 된다. 즉, 대학의 운영 당사자와 대학 학자금 부담 당사자 간에 상호간의 합리적 선택이 가능해지고 서로가 상대에게 쉽게 그리고 정당하게 승복하게 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을 덜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현재 대학의 결손 정원은 군입대 휴학, 가사 휴학, 依病 휴학 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편입학 제도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대학은 정당한 방법으로 결손 정원을 보충받을 수 있어 좋을 것이고, 편입학 시험에 합격하여 희망하던 대학의 학생이 된 사람들은 몇 해 전의 실패를 던고 에타게 갈망하며 노력한 댓가를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다. 또한 편입학을 허가받아 轉籍한 제3의 대학은 다시 결원을 보충받을 편입학 시험 실시의 기회를 얻게 되고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게 되므로 대학이 전략적으로 협동하고 정해진 규칙속에서 건전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소통적 측면에서 볼 때 편입학 제도의 활성화는 대학이 생산하는 학문과 사상, 지식과 의견을 사회적으로 널리 소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편입학 제도는 대학의 지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여 각 분과 학문 내부의 표준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연구와 교수에 전념하지 않는 교수들의 입지를 위축

시키고 대학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많은 구성 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진실한 이해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의 유출을 막기 위해 더욱 열심히 가르칠 것이며 학생과 교수 및 학교 당국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는 전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같이 대학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교섭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編入學 제도의 全面的 실시가 우리 사회에 팽배한 학벌 의식, 심지어는 학연이라는 새로운 연줄 잡기 등의 비이성적인 경쟁 동토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인지 발달 수준을 높여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공통처럼 거대해진 채 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재의 마비 증세, 예컨대 학내 분류나 사회와의 격리감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5. 맺음말

필자는 현재 부분적으로 다소 은밀히 시행되고 있는 대학 편입학 제도가 全面的·公開的으로 실시되어 대학 입학에 못지않게 일반의 관심을 끌어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대학간의 정당한 경쟁, 대학내의 정당한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를 역동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논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대학 입학 시험은 보편주의적 선발 원칙이라는 명분으로 본질적인 차별의 특수성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여러 양상이 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

둘째, 대학 입시에 한번 실패한 개인에게 1~3년 정도에 걸쳐 그의 심리적 재활을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 역량을 축적하는 일이다.

셋째, 대학의 분과 학문간의 지나친 세분화와 경계 확정은 인간의 지성 능력 발전에 역행하며 자연과 사회의 총체성을 폭 넓게 이해하는 데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轉科를 포함한 광범한 편입학 제도는 분과 학문 상호간의 교류를 증대시켜 학문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대학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대학의 교수와 학문 탐구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현재 대학의 학내 문제들을 협동적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섯째, 학연 의식을 어느 정도 희석시켜 사회에 만연한 분과주의의 폐해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대학의 합리적 재구성 과 끊임없는 갱신이 계속됨으로써 대학인 모두가 자기의 세계와 객관적인 사회 세계를 더욱 확실히 구분하여 생각하고 서로 다른 세계를 바라 볼 수 있는 합리성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사회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거로서 필자는 대학 편입학 제도가 조속히 전면적으로 실시되기를 고대한다. 관계자들의 보다 합리적인 심사속고와 정책 판단 그리고 국민, 특히 대학생과 학부모들 간의 기탄없는 대화에 의해 후속될 여론이 이 제도의 정착을 견인해 준다면, 필자를 포함한 편입학제 찬성론자들의 희망이 멀지않아 달성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어디까지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편적인 국민 정서와 감정을 가지고 대학 편입학 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 현행 교육 관계 법규상의 의무·허용·방임·금지 등의 여러 규범들을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법규가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여 국회가 할 일이 될 것이며 대학을 포함한 문교 당국자들로서는 그 법이 국민 개개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능률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지만, 아울러 법규나 제도 자체가 현실 사회와 정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책임도 있기 때문이다. 바라건대 법제를 고치든, 운용의 묘를 살리든 대학의 편입학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大學의 共同善이 굴절없이 재현되었으면 한다. 대학 편입학 제도의 찬반 의견이 활발한 公的 討論의 주제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 하나를 덧붙인다. *